

VOL.256



Open Doors
 เปิดประตูใจ เปิดใจ เปิดโอกาส



그 때까지...

최홍규 목사
(오픈도어선교회 이사)

신앙의 역사는 핍박과 고난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그렇고 신약시대에도 그렇고 종교개혁을 전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애굽에서 고난 당하던 이스라엘에서도 볼 수 있듯이 400년간 노예생활을 하면서 채찍과 고역으로 시달려야 했습니다. 요셉으로 인해 그의 가족이 애굽에서 번성 하였지만 야곱의 후손들이 번성하자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아 국력을 위한 노동력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고통 중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기 시작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도 했겠지만 마침내 하나님은 그들의 우고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 해방시켜 가나안에 정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서도 이방나라들의 침략과 간섭으로 고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에서 70년동안 노예생활을 하면서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버림받았다는 절망감과 이방인들의 조롱과 멸시 속에 그들의 신앙은 철저하게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강변에서 울기 시작한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은 또다시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고향으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그 후에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페르시아, 헬라, 로마 등의 압제 속에서 고통과 멸시를 당하면서 민족과 신앙은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2,000년간 나라없이 떠돌다가 나치독일에게는 600만이나 희생되었습니다. 예수시대로부터 지금까지 기독교는 세계 곳곳에서 핍박과 박해가 끊이지 않고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이스라엘이나 기독교인들에게 끊임없이 나타나는 질문과 부르짖음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언제까지 입니까? 어느 때까지 입니까? 또는 어찌하여...”라는 부르짖음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다윗의 시나 시편 중에서도 탄식시라는 형태의 시 가운데는 반드시 이러한 질문이 나옵니다. 시편42편에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나다.” 하면서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원수들의 조롱과 핍박 중에 부르짖기를 “사람들이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기에 내 눈물이 밤과 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목 마른사슴이란 시내가 다 말라버려서 돌맹이들만 널려있는 시냇가에 와서 돌들을 헤치며 먼지만 날리는 바닥을 후벼 파느라고 코와 입이 다 헐어 피가 날 정도로 물을 구하는 심정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전 12세기에 프랑스의 피터 왈도 라는 사람이 평신도이면서 부유한 사람인데 어느날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인 “네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큰 충격을 받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당시 프랑스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남부 리옹을 비롯하여 이탈리아 북부로 가로 놓여진 알프스 산을 오고가며 복음을 전했는데 당시 카톨릭의 부패와 잘못된 교리를 설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자, 카톨릭에서는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그들의 믿음

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목말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후예들이 후에 루터의 종교개혁역사에 참여하고 소수이지만 아직도 왈도파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00년전에 체코의 얀 후스라는 신부는 역시 카톨릭의 부패와 잘못된 교리를 비판하며 복음을 전하자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그는 이단의 누명을 쓰고 화형에 처해 졌습니다. 그와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목말라하며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는 조롱과 함께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갔습니다. 성경번역에 앞장섰던 존 위클리프나 윌리엄 틴데일 등과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도 결국 핍박과 박해 속에 세상을 떠나며 하나님을 목말라 했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세계 곳곳에서 핍박과 박해 속에 숨죽이며 신앙을 갖거나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목말라하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느 때 까지 입니까? 어찌하여...”라고 부르짖는 가운데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까? 우리 중에도 고통가운데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고난 중에 극복하고 새로운 삶이 주어졌지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고통 중에 하나님을 목말라 하면서도 그대로 인생을 끝마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3친구의 고백과 같이 “그리 아니하실찌라도...”라는 믿음입니다.

의인의 피 값은 죄인을 구원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는 죄 없이 당하는 의인의 고난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어느 한쪽에서는 그로 인

해 구원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값없이 흘려지는 피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피의 값을 반드시 보상 하실 것입니다, 아벨의 피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짐 같이..천상에서 순교당한 사람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신원하고 있으므로...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한국교회의 역사와 같이, 에콰도르 아우카 족에게 무참히 살해당한 5명의 선교사들의 피 위에 복음화가 이루어짐 같이 어느 날인가 하나님은 그 피를 보상할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러므로 의인도 아니고, 핍박받지도 않으면서 구원받은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우리의 부끄러움을 회개하며, 핍박자들과 핍박받는 자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한 그 때까지...

CONTENTS

05 북한선교현장

- 은신처에서 전해온 편지: '저는 여러분 덕분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었어요'

06 박해와 선교현장

- 몰디브(Maldives)

12 박해뉴스

인도네시아 / 베트남

15 현장스토리

- 멕시코 : '어린이들을 위한 폭풍 가운데서 굳게 서기' 프로젝트 개시
- 에티오피아 : 한 영혼을 향한 멈추지 않는 기도의 힘

18 Heart to Heart

오픈도어위클리(Open Doors Weekly) / 한국오픈도어 기도모임 / 2023년 어린이 박해지도 / 일어나라 아프리카 캠페인(Arise Africa Campaign) / 희망의 선물 / 한국오픈도어 연중 캠페인

OPENDOORS 7가지 핵심가치

-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 우리는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긴다
-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다
-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다
- 우리는 믿음으로 살며 사역한다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상명령에 헌신한다
-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한다

SUPPORT

<후원신청>

한국오픈도어선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후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후원과 일시 후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의 '후원하기'를 이용해 주세요.** 또는 **소식지 가장 뒷면에 있는 CMS 정기후원 양식**을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하기를 신청하시면 '기부금영수증'은 자동발급 됩니다.

<계좌이체>

직접 계좌이체를 통해 후원하기를 원하시면 아래의 계좌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서면으로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셔야만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문의 부탁드립니다.

<일시후원계좌>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앙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한: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선교회후원: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어린이&청소년 캠페인: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여성사역 캠페인: 신한은행 100-027-219169

***예금주 공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23년 08월호 | 통권 256호 |
등록번호-종량, 라00042**

공동대표: 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사역)

이사장: 김성태 교수

부이사장: 김영복 목사

이사회: 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최홍규, 이동현,

배춘섭, 윤상덕, 이바울 이사

사무총장: 김경복 선교사

개발/행정/재정/홍보/정보: 문민환, 황자경, 박인영

민태홍, 김하영 간사

북한선교: 이제나, 이다니엘, 윤수지, 안요한, 이정현,

김안나, 한아론, 장요셉 간사

발행처: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153 서울시 중랑구 봉우재로 133, 화성빌딩 2층

Tel. (02) 596-3171 / Fax. (02) 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편집 및 디자인 : 김섯별



은신처에서 전해온 편지:

‘저는 여러분 덕분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었어요’

계속되는 위험과 코로나19 제한에도 불구하고 오픈도어는 계속해서 은신처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 내 북한 기독교 난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식량, 의료지원, 목회 돌봄, 그리고 성경공부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북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고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편지를 써내려 갔습니다. 저희는 짧은 시리즈를 통해 여러분들과 3개의 편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편인 ‘저는 여러분 덕분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었어요’입니다. 여러분이 읽을 이 편지는 생존하기 위해서 조국을 떠난 한 북한 여성에 의해 쓰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통해 여러분의 기도와 지지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그녀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고 중국에 있는 한 비밀 은신처에서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저는 이 곳에서 성경 훈련을 받고 있어요. 이곳에서 받은 사랑과 은혜는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저는 펜을 들어 제 마음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중국에 왔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했어요. 저는 돈을 많이 벌겠다는 생각 밖에 없었어요. 밤낮으로 일하면서 벌 수 있는 만큼 돈을 벌었죠. 그러더니 코로나가 터졌고, 제가 있던 직장은 문을 닫았어요. 저는 더 이상 돈을 벌 수가 없었죠. 북한에 있는 제 가족들은 저에게 의지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많은 빚을 지고 있었고 빚쟁이들은 가족들을 압박했어요. 저희는 이자를 붙여서 돈을 빌렸기 때문에 제가 중국에 가서 더 많이 벌 수 있었어요. 일이 정지되었을 때 저는 너무 낙담하여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집에 돌아갈 수 있게만 벌고 싶었지만 그 기회마저 주어지지 않았어요. 북한에 있는 남편은 병이 들었고 저를 기다리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는 혼자 있다가 세상을 떠났죠. 세상은 제에게 불공평했고 저는 몹시 상심했어요. 세상을 원망했고 제 자신이 죽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제가 영적으로 떠돌아다닐 때 좋으신 아버지께서는 저를 안아 주셨어요. 그는 제가 천국 시민이 되도록 선택해 주셨어요. 저는 한 은신처에서 기독교인들과 접촉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저는 그들의 메시지에 관심이 없었어요.



요. 그저 생존하고 짐을 내려놓고 싶었어요. 저는 선생님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많이 배우게 되었어요. 성경은 천천히 제 마음을 변화시켰어요.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마음 속 깊이 깨닫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성경공부를 시작하고자 하는 동기가 잘못되었던 거죠. 저는 돈 버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에 대해 점점 더 배워가는 것이 즐거워요. 이곳 은신처에서 저는 필요한 모든 음식과 옷들을 공급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와서 십자가의 강한 군사로 제대로 훈련되었을 때 고향으로 돌아가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들과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예요.

비록 그때가 언제 일지는 모르지만 제가 말씀으로 훈련되어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북한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국가가 되는 날을 꿈꿔요. 그날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아버지께로 나아오고 함께 주님을 예배할 거예요. 선생님들의 기도와 수고들지 않는 저의 노력과 헌신이 모여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뤄 주실 것을 확실히 믿어요. 저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죽어지는 날에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말이에요. 저의 인생 전부를 주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선생님들의 사랑의 보살핌과 공급하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 되어 이 큰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요. 저희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주세요. 하고 싶은 말이 더 있지만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드립니다.’

기독교 박해지수 World Watch List 2023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기독교 박해지수

15 위

몰디브 (Maldives)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별 박해지수 총합은 100점이다 (16.7 × 6개 영역 = 100).

주목할 만한 점 (Key findings)

몰디브인들은 이슬람교인이 되도록 기대된다. 몰디브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인구 밀도 중 하나를 가지며 이는 특히 주요 섬인 말레에서 더 그러하다. 긴밀히 맺어지고 동질적인 공동체는 종교를 포함해 이들 구성원들의 모든 일탈에 대한 자연스러운 감시인 역할을 한다. 기독교로의 개종은 이슬람교 지도자들 또는 당국들에 보고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대부분 관광 부문에서 일하며 인도와 스리랑카 출신의 이주민 기독교인들은 면밀히 감시를 당한다. 이는 예배를 위해 모이는 것을 아주 어렵게 만든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이주민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떠났다. 그리고 국가가 관광산업을 재개하면서 서서히 돌아오고 있다.

몰디브 (Maldives)

국가 정보

지도자 : 이브라힘 모하메드 솔리 대통령

인구 : 541,000 명

기독교인 수 : 수 백명 (오픈도어 추정)

주요종교 : 이슬람교

정부형태 : 대통령중심제



국가 상황

주요 종교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	수 백명	-

2012년에 민주적으로 선출된 첫 번째 대통령인 모하메드 나시드의 축출 이후 그의 후임자들은 국가가 100% 이슬람교 수니파 미만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목표를 자주 되풀이했다. 반대 세력들(통치자들에게 위협으로 여겨지는 이들을 포함)은 나라 밖으로 쫓겨나거나 체포되었다. 2021년 5월 7일, 나시드가 차에 탈 때 그의 집 밖에서 폭탄이 터졌다.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이 공격의 배후에 있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현재 나시드는 의회 의장으로 있다. 현재 야당에 있는 압둘라 야민 압둘 가유 전 대통령은 이미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황에 더해 격렬한 반인도 운동으로 계속해서 정부를 공격한다.

시민의 자유는 점점 더 제한되고 있다. 이는 2017년 4월 발생한 유명한 블로거 야민 라시드 살해와 2019년 11월 비정부기구(NGO)인 몰디브 민주주의네트워크의 강제 해산에서 보여준 것처럼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를 포함한다. 2018년 9월에 막대한 차이로 선출된 새로운 지도자 이브라힘 솔리는 몰디브에 어떠한 실질적 변화도 가져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소수의 기독교인들은 친교를 누리고 함께 예배할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시달리고 이는 주민 대부분과 공유하는 고립, 사회적 문제들, 그리고 질병을 야기한다.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공동체로의 존재를 공적으로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처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경각성을 유지해야 한다. 주로 샤리아법의 영향으로 몰디브의 법체계는 여성들과 소녀들에 대해 여전히 제한적이다. 몰디브 이슬람교 여성은 이슬람교 남성들과는 달리 타종교의 남성과 결혼할 수 없다. 이들은 법에 의해 여전히 이슬람교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는 여성 개종자들로 하여금 기독교인과 결혼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 기독교인 수에 대한 오픈도어의 추정은 '수 백명'이다. 보안상의 이유로 종교에 대한 세부 분석은 공개할 수 없다.

지역별 상황

박해는 국제 관광객들을 위해 따로 마련된 섬들 밖에서 일어난다.

박해 받는 성도

이주민 기독교 공동체

이주민 기독교인들은 보통 인도, 스리랑카, 또는 방글라데시 출신이다. 이들 공동체들은 결혼과 세례와 같은 모든 가시적인 기독교 모임들을 포함해 면밀히 감시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주민 기독교인들은 함께 엄격하게 머물고 현지 몰디브인들 또는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토착민들과 접촉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대사관에서) 모일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

이 범주는 기독교 박해지수 점수 기록 및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

이슬람교 배경을 가진 기독교 개종자들은 단연코 가장 극심한 침해에 직면하고 공식적으로 이들은 국가에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이슬람교를 떠나면 시민권을 상실한다.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이 범주는 기독교 박해지수 점수 기록 및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해와 차별의 주된 요인

이슬람의 탄압:

이슬람 정부는 여전히 스스로를 이슬람 보호자로 보고 몰디브인들이 개종하는 것을 금한다. 공식적으로 몰디브인 기독교인들은 없고 이주민 기독교인들만 존재한다. 이슬람부와 국방부의 공식 정책은 배교자들은 절대로 용인될 수 없고 정부는 절대로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다.

독재정치:

이슬람이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정당성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의 탄압은 독재정치와 혼합되어 있다. '종교의 보호'가 '이슬람의 보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는 계속해서 제한된다.

조직화된 부패와 범죄:

부패는 정부의 모든 단계에서 만연해왔고 공무원들은 뇌물, 특혜, 그리고 위협에 의해 움직여진다. 추가적으로, 이전에 정부 관리들은 길거리 갱들을 고용해 보다 더 세속적인 정적들에 겁을 주고 소유물을 파손시키고, 심지어 공격을 가했다.

남성과 여성의 박해 상황 차이

여성

이슬람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고려할 때 기독교인 남성들과 여성들은 비밀신자가 되어야 한다. 만약 기독교인 여성 또는 소녀가 기독교인인 것이 발각되면 그녀를 이슬람으로 되돌리기 위한 강제결혼, 언어폭력, 위협, 또는 다른 형태의 폭력을 통해 모든 노력이 가해질 것이다. 섬에 대한 긴밀한 사회적 통제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집안에서 발생하는 젠더기반폭력을 보는 문화에서 학대, 강간, 그리고 성희롱은 흔하다. 성적 그리고 신체적 학대는 기독교 여성들에 대한 종교 박해의 수단으로 이용된다.

- 강제 종교적 복장 규정
- 강제결혼
- 폭력 -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 언어적

남성

몰디브인은 비밀 기독교 신자인 것이 발각되면 상해, 괴롭힘, 위협, 또는 정부에 의한 투옥(최근에 이러한 사례들이 없었지만)을 견뎌야 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압박을 고려해 많은 이들은 형편이 되면 나라를 떠나 해외에서 살기를 선택한다. 투옥되면 먼 가족들은 재정적 그리고 감정적으로 시달리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 정부에 의한 투옥
- 폭력 - 신체적 / 정신적 / 언어적

몰디브 기독교 박해지수 5년 동향

연도	오픈도어 기독교 박해지수 순위	박해점수 (100점 만점)
2023	15	77
2022	16	77
2021	15	77
2020	14	78
2019	14	78

2023년 월드와치리스트 때 기독교인들에 대한 압박 정도는 매우 높음에 남아 점수가 거의 바뀌지 않았다. 매우 낮은 폭력 점수는 과거와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개종자들은 말그대로 그들의 신앙을 살아낼 공간이 없고 이주민 기독교인들(보통 이주 노동자들)은 체포 및 추방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예배 드릴 기회가 없다. 그 결과, 몰디브는 교회영역에서의 계속해서 압박지수가 거의 만점에 이르는 몇 안 되는 국가들 중 하나이다. 2018년 11월 중순에 정권을 잡은 새정부는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명백한 개선을 이루지 않고 내부의 정치투쟁에 더 집중하고 있다.



보고 기간 동안의 폭력 사례 (2021년 10월 1일 - 2022년 9월 30일)

보안 문제로 기독교인들을 포함하는 폭력 사건들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들은 공개할 수 없다.

개인 생활

기독교 개종자들은 이들의 신앙을 숨기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성경 및 다른 기독교 자료들은 잘 숨겨놔야 하는데, 이와 같은 문헌을 소유하는 것은 구금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국의 드히베히어로 된 기독교 자료를 구하는 것은 특히 위험한데, 이것이 현지 주민들을 전도하는데 사용된다는 당국들의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국들과 지역사회는 계속해서 반 이슬람으로 인식되는 상징물들을 찾고 있다. 예를 들어 리조트의 크리스마스 장식(크리스마스 트리 포함)들이 일부 종파들의 민감한 부분을 공격한다고 인식되어 2020년 12월에 경찰들이 이것을 제거했다. 이주민 기독교인들의 경우, 근로계약서는 보통 비 이슬람교 신앙을 표현하는 이들은 최대 5년까지의 투옥, 자택 연금, 5,000부터 20,000 루피아(\$320에서 \$1,300)까지의 벌금, 그리고 추방에 직면할 수 있다고 흔히 규정한다.

가족생활

세례식과 기독교 장례식은 비밀리에 행해져야 한다. 헌법은 제 36조 (c)에서: “교육은 이슬람에 대한 복종을 심어주는데 매진해야 한다.” 라고 명시한다. 기독교 개종자들의 자녀들은 이슬람의 가르침들을 공부하도록 강요를 당한다. 비록 이주민 기독교인들의 자녀들은 이슬람 수업들을 참여하는데 있어서 면제를 받지만 이슬람은 모든 학교 생활 가운데 퍼져있다. 보통 형편이 되는 기독교 이주민 부모들은 자녀들을 국제학교에 보낸다.

지역사회 생활

높은 인구 밀도, 사회적 동질성, 그리고 이슬람에 맞춰진 적극적인 정부 정책들은 몰디브에서 사회적 압박이 극도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특히 수도인 말레에서 특히 그렇다. 한 예는 최근에 널리 퍼진 검은 부르카 채택(아랍의 영향으로)이다. 이슬람교 및 비 이슬람



교 여성들이 가리기를 거부한 사건들은 강제 추방 또는 폭력을 야기했다. 더 넓은 지역사회에 의한 강제 이슬람화의 또 다른 예는 개인의 신앙과 상관없이 라마단의 금식 요건들을 지키도록 하는 요구인데, 거절은 체포 및 뉴스와 미디어에 의한 공개적 수치를 야기할 수 있다. 정부는 해외에 사는 몰디브인들로 하여금 온라인 이슬람 및 문화 수업들을 참여하도록 지시한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괴롭힘, 경제적 기회 상실, 또는 극단적인 경우에 폭력을 피하기 위해 이것을 따르도록 하는 계속 되는 압박 아래 있다.

국가 생활

헌법은 국가를 '100% 이슬람교' 라고 언급하고 정부 규제는 이슬람법에 기초를 둔다. 다른 규제들 중에서 하나는 "이슬람교 외에 다른 종교를 전파하는 것은 불법이다." 라고 명시한다. 이 규제를 위반할 때, 처벌은 가택 연금에서 최대 5년까지의 투옥에 이를 수 있다. 범죄자들이 외국인일 경우에는 대개 강제 추방을 당한다. 2020 미 국무부 국제종교자유 보고서는 "국가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CPR)에 관여하고 있고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ICCPR 제18조에 제시된 원칙들에 대한 정부의 적용이 '공화국의 헌법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을 명시하는 유보를 포함한다." 라고 인용했다. 시행 중인 '명예훼손법'은 반 이슬람적 발언들에 맞서는 조항들을 포함한다.

교회 생활

20세기 때 몰디브에는 제대로 된 교회가 주로 이주민들을 위해 운영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법은 "국가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비 이슬람교인들은 이들의 종교적 믿음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해 공공 회중 모임을 갖는 것, 또는 이와 같은 활동에 몰디브인들을 참여시키는 것을 금지 당한다."라고 명시하면서 비 이슬람교 종교 집단들을 위한 예배 장소 설립을 금한다. 이슬람 외에 종교적 믿음을 표현하는 이들은 최대 5년까지의 투옥 또는 가택연금, 최대 \$1,300까지의 벌금, 그리고 강제 추방에 직면한다. 이주민 기독교인들은 당국들에 의해 감시를 당한다. 기독교 자료들을 들여오는 것은 불법이고 유죄인 이들은 구금 당하고 투옥 당한다. 경찰과 세관들은 이슬람에 반하는 가치들 또는 방

법들을 나타낼 수 있는 우편을 통해 전달된 기독교 자료 및 편지들을 몰수했다. 이주민들은 개인적 용도로 아주 제한된 양의 기독교 문헌들이 허용된다.

국제적 의무 및 권리에 대한 위반

몰디브는 다음 국제 조약들에서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로 약속했다.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CPR)
2. 경제적 ·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ESCR)
3. 고문방지협약 (CAT)
4. 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5. 유엔 아동권리협약 (CRC)

몰디브는 다음 기독교인들의 권리를 자주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의 국제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 기독교 개종자들은 새로운 신앙이 발각되면 이들은 샤리아를 위반한 것으로 시민권을 빼앗기고 사회에서 고립되고 국가 복지를 상실한다 (ICCPR 제18조, 제26조)
- 국가에 살거나 방문하는 비 이슬람교인들은 이들의 종교적 믿음을 특히 몰디브인들과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금지된다 (ICCPR 제18조, 제19조)
- 몰디브에는 교회가 없고 비 이슬람교도의 의식은 금지된다 (ICCPR 제18조, 제21조)
- 이주민 기독교인들의 사적인 예배 모임들은 엄격하게 감시를 당하고 당국들에 의해 통제된다 (ICCPR 제17조)
- 기독교 여성들은 전통적인 이슬람교 복장을 준수하지 않으면 괴롭힘을 당하거나 폭력에 직면한다 (ICCPR 제18조, CEDAW 제2조)

이외 소수 종교 집단의 상황

몰디브에는 알려진 소수 종교 집단이 없다. 전국민은 법에 의해 이슬람교인이 되도록 요구된다. 이슬람 외에 모든 종교 또는 철학에 대한 지지의 형적을 나타내는 사람은 기독교인들과 같은 방식으로 박해를 받는데, 이들 대부분은 구금, 심지어 죽음에 직면하기 보다 망명을 원한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IRFR 2021): “비정부기구(NGOs)들은 계속해서 이슬람교인으로서 불충분하다고 인식되는 개인들에 대한 집요한 온라인 및 실물 위협들이 사실상 국가 내 종교적 문제들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의 가능성을 배제했다고 명시했다.”



몰디브 오픈도어 사업

몰디브 지도자들은 이들 인구가 100% 이슬람교인임을 주장하고 이것을 자랑한다. 누구라도 이슬람교로부터 개종시키고자 하는 모든 시도들은 구금과/또는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오픈도어는 더 많은 현지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전세계 기독교인들에게 더 많은 기도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교회 폭탄 테러로 가족을 잃은 웨니

채널추가하시고 매주 전세계의 기독교
박해뉴스를 받아보세요.



5년 전인 2018년 5월 13일, 연쇄 폭탄 테러는 인도네시아 수라바야를 뒤흔들었고 총 28명의 사망자와 57명의 부상자를 남겼다. 가족테러범에 의해 조직화된 교회 세 곳이 표적이 되었다. 이 비극은 2002년 발리 테러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치명적인 테러 공격이었고 전국민을 흔들었다. 2018 수라바야 폭탄 테러는 피해 입은 가족들과 지역사회에 깊은 충격을 남겼다. 테러로 목숨을 잃은 네이슨(11세)과 이반(8세)의 어머니인 웨니 안젤리나 후두조는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을 감당해내고 있다.

처음에 웨니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이 보였다. “그녀는 외향적이고, 친절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수월했어요. 마치 옛 친구와 회포를 푸는 것 같았어요.” 한 현지 파트너가 나눴다. 웨니는 “저는 오픈도어 현지 파트너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아서 놀랐어요. 저희가 작년에 만난 것으로 기억하는데, 솔직히 당신이 저를 아직도 마음 쓴다는 사실이 정말 기뻐요.” 라고 얘기했다. 그녀는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했지만 모임은 집에서 갖지 않을 것을 요청했다. “남편과 시어머니께서 제가 당신을 만나 비극에 대해 얘기했다는 것을 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얘기를 나누며 테러가 미친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싶었지만 동시에 사랑하는 이들의 정서적 건강도 고려해야 했다. 비극 이래 5년이 지났지만 그녀의 가족들, 특히 남편은 사랑하는 아들들을 잃고 여전히 정서적으로 씨름하고 있다. “남편은 그날 아침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가지

못한 것에 대해 아직까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요.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는 삶의 동기와 목적 의식을 잃었어요. 이들의 가정과 관계는 이 상황의 영향을 받았다. 남편은 낙심의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다. “그저 남편이 언젠가 다시 예수님을 신뢰하는 날이 오기를 조용히 기도하고 있어요.” 웨니는 희망 가득한 눈으로 나눴다.

특별한 날이 돌아올 때면 웨니는 평소 보다 더 아이들을 그리워한다. “매년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중국 춘절과 같은 축제절에는 정말 외로워요. 그리고 매년 5월 13일에는 슬픔이 손에 만져질 듯해요. 비록 5년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아이들이 그리워요.” 그녀의 씨름은 자녀들을 잃은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 도리어 더 힘겨워지고 있음을 느끼는데, 특히 가족 관계에서 그러하다. “사람들은 어쩌면 제가 기뻐 보인다고 의식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씨름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잃은 것이 힘들 거라고 생각했지만 제 씨름은 훨씬 더 힘들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하지만 주님 안에서 계속 기도하며 소망하고 있어요.” 현재 웨니는 남편, 시어머니, 그리고 함께 사는 조카딸을 포함해 가족들을 돌보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있다. “제가 겪은 것을 경험한 이들을 도울 수 있기를 바라요. 얼마전에 자녀를 잃은 친구가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비슷한 경험을 지나고 있는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이에요.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선하심이 다른 이들을 격려할 수 있기를 기도해요.”



기도해주세요

1. 웨니의 남편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상한 마음을 고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2. 하나님께서 웨니와 남편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들이 트라우마로부터 함께 일어서고 이들의 아픔을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시도록, 그리하여 비슷한 경험을 지나고 있는 이들을 굳건하게 하도록 기도해주세요.
3. 웨니가 애통해 하는 이들을 지지할 수 있도록 위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문이 열리기를 기도해주세요.

베트남_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마을 주민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다

끼에우(가명)와 세명의 손주들은 마을 주민들에 의해 새로 품게 된 믿음을 포기하라는 압박을 받았다. 이들은 고립되었고 가족들의 보금자리는 파괴되었으며 쌀과 옥수수도 피해를 입었다. 일부 가족들을 잃고 다음 작물들에 대한 수확이 없는 가운데서 노년의 삶은 매우 힘들었다. 그러나 현재 직면하고 있는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믿음 안에서 굳게 서있다.

끼에우와 그녀의 세 손주들은 베트남 북동부의 한 마을에서 이웃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다. 자신들만의 사업을 운영하며 작물을 기르고 가족을 돌보며 살았다. 아이들의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에 끼에우는 혼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다. 최근에 이 가정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고 마을 주민들은 이들의 새로운 신앙을 심하게 반대하며 삶을 더 힘들게 만들었다. 끼에우가 속한 주는 늘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심한 지역이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외진 지역들에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해당 지역에서 박해가 증가했고 새신자들은 그들의 권리 및 종교와 관련된 법에 대한 지식

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결단했을 때 위협과 신체적 괴롭힘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마을 주민들은 저와 손주들을 보러 수차례 왔다 갔어요. 그들은 저희가 신앙을 부인하도록 압박했지만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기로 결단했죠.” 끼에우



가 나왔다. 그녀가 신앙을 부인하기를 거부하자 마을 주민들은 소유물들을 파괴했다. “이들은 저희 가축들의 보금자리를 망가뜨리러 왔어요. 쌀과 옥수수 수확물도 망쳤고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부인하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신앙을 지켰어요.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죠.” 이 일 이후에 마을 주민들은 잠시 이 가정을 내버려 두었는데, 이는 기독교인으로 받아들여져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제외시키기 위함이다. “저희는 주민들에 의해 소외를 당했죠. 보금자리가 사라지자 닭과 돼지 몇 마리는 숲 속으로 도망쳤고 나머지는 도둑 맞았어요. 다음 작물들도 수확을 하지 못할 거예요.” 작물들이 파괴되어 끼에우는 앞으로 식량을 어떻게 얻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리고 끼에우는 건강이 좋지 않아 가축들의 보금자리를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을 벌기에 어려운 상황이다.

교회는 처음에 식량을 나눠줬지만 성도들의 가정상황이 가난하다 보니 지속할 형편이 되지 않았다. 그래도 성도들은 끼에우를 격려하기 위해 계속해서 방문하고 있다. 오픈도어 현지 파트너인 이삭(가명)은 현재 끼에우와 손주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보금자리를 보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삭은 “매우 힘든 상황이에요. 끼에우는 나이가 많고 세명의 손주들을 먹이고 입혀야 하는 상황에서 굳게 서있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있어요.” 라고 전했다.



기도해주세요

1. 마을 주민들이 계속해서 신앙을 부인하도록 압박하고 가정을 마을 밖으로 쫓아내기 위한 방법을 찾는 가운데서 이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서있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주세요.
2. 마을 주민들이 농장의 작물들 및 가축들의 보금자리를 파괴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3. 현지 교회가 이 가정을 잘 돌보아줄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현장스토리

멕시코 '어린이들을 위한 폭풍 가운데서 굳게 서기' 프로젝트 개시

오픈도어는 2021년부터 멕시코의 박해 받는 기독교 인들을 지지하고자 했습니다. 이번은 멕시코 남부의 다섯 개 촌락 공동체 출신의 어린이들 170명이 믿음과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과 자원을 제공받았습니다. 멕시코 촌락 공동체에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멕시코 오픈도어에 따르면,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신앙을 공언하는 것을 막는 네 가지 주요 박해 근원이 존재하는데 조직화된 범죄와 부패, 부족 간의 적대감, 도시권에서의 세속주의, 촌락 공동체의 종파 보호주의입니다. 마지막은 촌락 공동체가 가장 많이 존재하는 치아파스주, 오악사카주, 그리고 이달고주에서 가장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활동들은 수년 동안 대립한 가운데서 믿음과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어른들과 협력하는데 집중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머무르면 서 장기적인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이 부모들처럼 박해의 결과로부터 고통받으면서 이들과 협력하는 것의 중요성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미성년자들은 부모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결국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많은 경우에 이들은 자신들의 공동체, 친구들, 학교, 심지어 가족들로부터 깊은 설명 없이 거부를 당한다. 이는 어른들에게 있어서 종교적 박해를 이해하는 것은 복잡한데, 미성년

자에게는 더욱 더 어렵기 때문이다.” 라고 멕시코 오픈도어 커뮤니케이션 코디네이터 리체트 코르테스는 설명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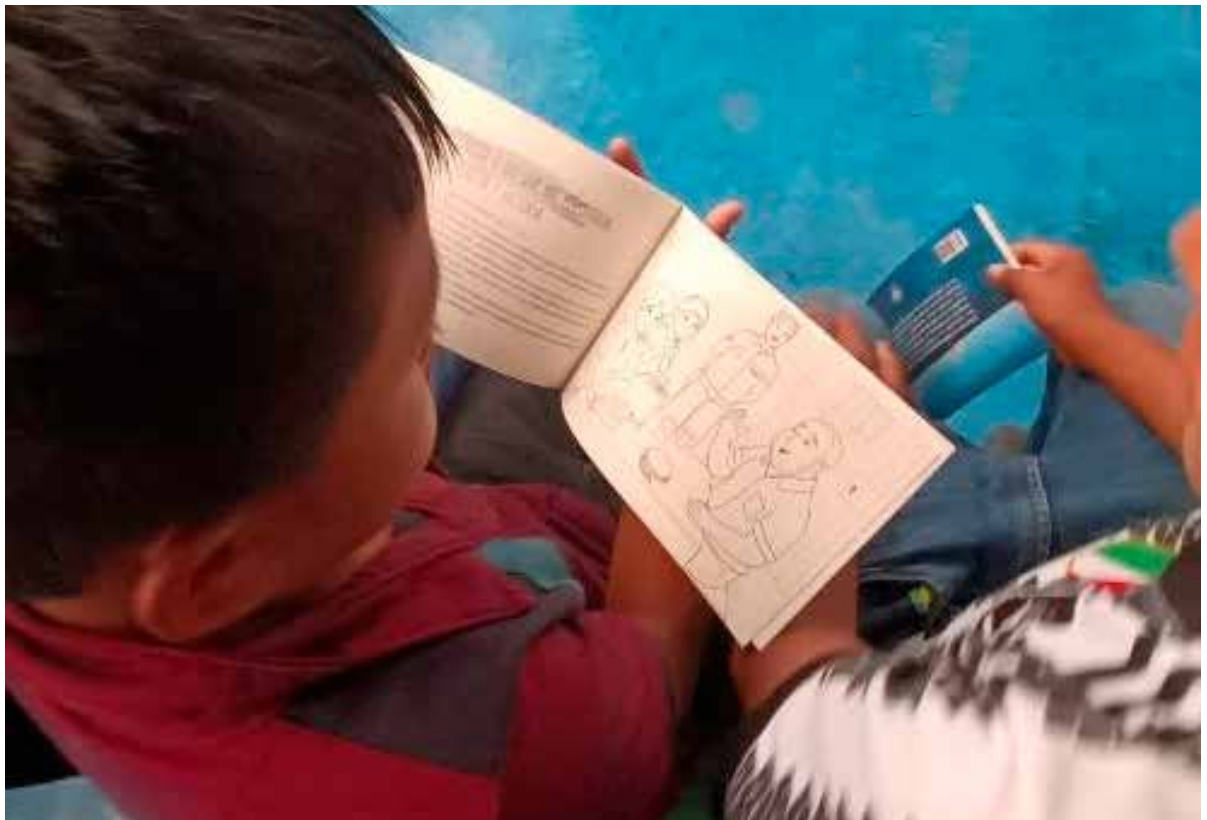
이러한 이유로 2022년에 오픈도어는 박해의 맥락 속에서 살아가는 멕시코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의 믿음과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첫번째 교육자료는 6세-15세 사이의 어린이들 및 젊은이들에 알맞게 ‘폭풍 가운데서 굳게 서기’ 매뉴얼(SSTS)에 기반해 개발되었습니다. 해당 자료는 박해를 경험하는 공동체들이 긍정적으로 자신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성경적이고 영적인 도구들을 제공하는 자원입니다.

성도들이 박해를 받았고 현재도 받고 있는 공동체들로 둘러싸인 밀림 한 가운데에 있는 토착민 지역사회인 치아파스주의 산토 토마스 마을에서 5월 26, 27일 매뉴얼을 개시했습니다. 5개의 공동체에서 온 어린이들 170명이 이 행사에 참여했으며 일부는 밀림을 건너 5시간 넘게 걸어서 왔습니다. 이 행사는 집단 리더십과 어린이 워크샵에 경험이 있는 동료 가브리엘 카마초 형제에 의해 진행되었습니다. 가브리엘 카마초 형제는 4월에 코미탄에 있는 성경 훈련 센터에서 12-30세 사이의 젊은 치아파스인 24명을 훈련시켰습니다. 해당 지역의 오픈도어 프로젝트를 통해 수혜를 입은 이들도 일부 포함된 이 젊은이들은 지역사회 어린이들에

대한 섬김의 정신과 사랑을 가지고 활동을 지지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아이들과 젊은이들은 책자의 가르침을 듣고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재미있는 활동들을 개발했습니다. 이들은 가르침을 통해 박해에 대한 해답으로서 사랑과 용서를, 이러한 갈등 가운데서 예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적이 누구인지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모국어인 첼탈어로 얘기했기 때문에 언어적 장벽이 조금 있었지만 웃음, 게임, 그리고 노

래들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아이들이 4월에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이들이 웃음을 되찾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보니 정말 기뻐요.” 가브리엘 카마초가 전했습니다. 팀원들 전부 다 단체에서 제공한 과정을 마치고 지역사회 교회들을 섬기고자 하는 젊은이들을 보고 정말 격려를 받았습니다. 젊은 이들이 배운 것을 반복 실천하면서 치아파스주의 다른 지역사회에서 이와 같은 어린이 활동들을 수행하여 받은 자료들을 계속해서 나눠주는 것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해주세요

저희는 이 공동체들 가운데서 영적인 움직임을 목격하고 있으며 주님께서 프로젝트를 통해 계속해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170명의 아이들에게 나눠준 이 자료들이 박해 받고, 박해에 직면할 수 있는 이들과 가족들의 삶 속에 영향을 끼치도록, 그리고 이 가르침이 어린 아이들의 마음 속에 항상 남아 있기를 기도합니다.



에티오피아_한 영혼을 향한 멈추지 않는 기도의 힘

오픈도어는 늘 기도를 요청합니다. 저희는 전세계 기독교인들이 박해 받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주기를 소망합니다. 매년 다양한 방법으로 수백명 기독교인들의 상황을 알립니다. 10년전인 2013년에 저희는 랄리스를 위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결혼한지 몇 달 만에 에티오피아 출신의 이 젊은 여성의 남편은 교회를 개척했다는 이유로 살해당했습니다.

저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독일 출신의 한 젊은 여성은 랄리스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고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동안 멜라니는 매일 저녁 만나적도 없는 에티오피아 여성, 랄리스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비록 랄리스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했지만 그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멜라니는 약 10년이 지나고 오픈도어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랄리스가 어떻게 지내는 지 알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멜라니는 교회에서 진행된 오픈도어 특강에서 랄리스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2013년 그날 밤에 오픈도어는 몇몇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요청했는데 멜라니에게는 랄리스의 이름만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랄리스에 대한 소식을 한 번도 듣지 못했지만 매일 저녁 기도했습니다.

랄리스는 전세계 기독교인들이 자신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알고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했습니다. 재혼을 하고 가정을 이뤘고 공부도 마쳤습니다. 곧 학교 선생님으로서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모두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주님께서 축복해주시기를 바라요.” -랄리스

“우리가 박해 받는 기독교인들을 잊지 않는 것은 중요해요. 이들이 혼자라고 느끼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떠나시키지 않을 것을 알도록 기도해야 해요. 지체들이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도 말이죠.” -멜라니

이 이야기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함께 들어주세요.

오픈도어_Open Doors South Korea
한국오픈도어 유튜브 채널에서 '한 영혼을 향한 멈추지 않는 기도의 힘'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



유튜브 채널 들어가기



Heart To Heart

WEEKLY

Open Doors

한국오픈도어는 오픈도어위클리 모바일 주간 소식지를 통해서도 전세계 박해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소식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된 형제자매들을 위해 함께 마음 모아 주시고
응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간 소식지는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Ch



한국오픈도어선교회 +



Open 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오픈도어 기도모임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히브리서 13장 3절)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전세계 박해 받는 성도들과 교회들을 위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히브리서 13장 3절)" 기도회는 **매주 화요일 저녁 07:30-20:30**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줌(Zoom) 회의실 정보

회의 ID: 428 695 6103

링크:

<https://us02web.zoom.us/j/4286956103>

*문의 사항

한국오픈도어선교회 대표번호: 02-596-3171

카카오톡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2023년 어린이 박해지도

어린이 및 청소년들과 함께 전세계 박해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활동자료를 나눕니다. 받아 보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한국오픈도어 홈페이지의 '요청하기'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문의 사항

한국오픈도어선교회 대표번호: 02-596-3171

카카오톡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1. 북한
하나님,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북한에서 사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녀를 버리지 않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과 함께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김씨 정권의 우상들이 허물어지도록 기도드립니다.

50. 니카라과
니카라과 정부는 교회 지도자들을 사회 반역 음모자로 분류하고 교회활동이 막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담대하게 나눌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49. 요르단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고 국민을 위해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48. 카자흐스탄
종교와 신앙이 막히고 정부의 심한 통제 속에서 살아가는 카자흐스탄의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특히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이 국가,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로부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드립니다.

47. 오만
하나님, 고립되고 외로운 기독교인들이 다른 기독교인들과 우정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가족들이 신앙을 포기하게 하려고 해도 이들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46. 브루나이
브루나이에서 하나님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도록 기도드립니다.

45. 카메룬
하나님, 카메룬에 평화가 임하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폭력에서 보호해주시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마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44. 타지키스탄
타지키스탄에서는 아이들이 교회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이들이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에 대해 알아 갈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43.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에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정부가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도록 기도드립니다.

42. 코모로
하나님, 기독교 비밀 신자들 사이에 만남이 이루어지고 제자훈련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압박과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이들이 서로 도와주고 필요들을 나눌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41. 튀르키예
하나님, 기독교에 대한 튀르키예 지도자들의 태도를 변화시켜주세요.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이슬람교인들과 동등하게 인정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드립니다.

40. 부탄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부탄 당국의 빈틈없는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신앙을 이유로 가족, 직업, 그리고 물려 받은 재산을 잃은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세요. 이들이 지혜와 용기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39. 에티오피아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선택했다고 가족 또는 지역사회로부터 거절당한 젊은이들을 도와주세요. 에티오피아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동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공격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드립니다.

38. 멕시코
하나님, 마약과 갱단에서 목숨을 높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과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다가 상처 입고 피해 당한 이들을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드립니다.

37. 콩고민주공화국
하나님, 폭력적인 공격으로 인해 상처 입고 피해 당한 그리스도인들을 치유해주세요. 집을 떠나 난민촌에서 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공급이 계속 제공되도록 기도드립니다.

2. 소말리아
하나님, 많은 갈등을 겪은 소말리아 땅에 안정을 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해주세요.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가 제공되고 이 땅에 평화가 회복되도록 기도드립니다.

3. 예멘
하나님, 많은 갈등을 겪은 나라에 안정을 주세요. 기독교 비밀 신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생각나도록 해주세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가 제공되고 이 땅에 평화를 회복해 주시고 비밀 교회가 담대해지도록 기도드립니다.

4. 에리트레아
에리트레아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끔찍한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감옥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자유롭게 되도록 기도드립니다.

5. 리비아
리비아에 법과 질서가 빨리 세워지고 취약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조직의 세력들이 없어져서 그리스도인들이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6. 나이지리아
하나님, 폭력으로 부모님을 잃은 모든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위로해 주시고 음식과 약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공급되도록 기도드립니다.

7. 파키스탄
하나님,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드립니다.



36. 튀니지
튀니지에서 기독교인들은 모호하고 눈에 띄지 않는 차별과 표적을 당합니다. 기독교 신자로 가족과 사회로부터 당하는 공격 때문에 이들은 신앙을 숨기고 살아갑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자유와 보호가 임하도록 기도드립니다.

35. 이집트
기독교인들은 지역사회로부터 차별과 괴롭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은 가족에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이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상처와 피해를 당하지 않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34. 카타르
하나님, 카타르의 기독교 비밀 신자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세요. 고용주에게 학대당하는 기독교 이주 노동자들을 보호해주시고 기독교에 대한 관대한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드립니다.

33.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이들은 가족으로부터 소외와 욕설, 그리고 폭력을 당합니다. 교회들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기독교인들과 교회들이 가족과 당국으로부터 거절당하지 않고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32. 모잠비크
모잠비크 북부에서 반군은 교회와 기독교 학교, 그리고 사업체를 파괴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을 공격에서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드리며, 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세요.

31. 라오스
하나님, 일부 교회의 지도자들이 감혀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이들의 가족과 교회들을 돌보아 주세요. 그리고 교회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성장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소한
기독교인들은 적
일자리만 얻을
니다. 그리고
력을 당하는 여
강제 결혼을 당
습니다. 파키스
성모독범이 바
기도드려요.

8. 이란
이란 정부는 교회 지도자들을 발
견하면 그들을 가둡니다. 하나님,
비밀교회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믿음을 이유로 감옥에 갇힌 그리
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힘
을 알게 해주세요. 기독교가 더
이상 외국의 종교와 사상으로 인
식되지 않도록 기도드려요.

9. 아프가니스탄
하나님, 이웃 나라로 피신한 사람
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스도
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그
들은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누구에
게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니 하나
님을 비밀리에 따르는 모든 이들을
보호해주세요. 그리고 탈레반 지도
자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기도드려요.

10. 수단
수단의 기독교인들과 교회
는 엄청난 압박 아래 있습
니다. 교회들은 다시 문을
열지 못하고 기독교인들은
많은 이유로 권리를 빼앗
기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
한 차별이 없어지고 나라
에 평화가 회복되도록 기
도드려요.

11. 인도
어떤 사람들은 인도에서 기독교인들
을 몰아내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매
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
어 감사드려요. 소수 종교를 받아들
이도록 인도의 정책을 변화시켜 주
시고 새롭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리스도인들이 가족과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기도드려요.

12. 시리아
하나님, 전쟁으로 집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을 도와주시
고 지진으로 지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세요. 도시와
마을을 다시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사람들을 보내 주시
고,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정부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기
도드려요.

13. 사우디아라비아
하나님, 사우디아라비아의 기독교 비밀 신자들을 안전
하게 지켜주세요. 고립된 비밀 신자들이 다른 기독교인
들과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믿음을 나누는
성도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성
에 대한 억압적인 문화가 사라지도록 기도드려요.

14. 미얀마
하나님, 미얀마에 평화를 주세요. 전쟁과 갈등이 멈추
게 하시고 기독교인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수많은 취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오폴도어는
이들에게 생존권을 시키며 돕고 있는데 훈련이 계속
이어지도록 기도드려요.

15. 몰디브
몰디브의 기독교인들은 비밀리에 만나야 합니다. 하
나님, 그들을 보호해주세요.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그
리스도인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도록 기도드려요.
성도들이 안전하게 성경 자료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고 고립되어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이 전해지도록 기도드려요.

16. 중국
하나님, 중국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점점 더 감시합니다.
그들이 담대함을 얻게 해주시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게
해주세요. 중국의 교회가 박해 속에서도 계속 성장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용감해지도록 기도드려요.

17. 말리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집과 마을에 공격
을 입은 모든 이들을 도와주세요. 지속적인 위협과 차
별, 박해로 지친 이들을 성령으로 믿음을 굳건히 세워
주시고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말리
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드려요.

18. 이라크
하나님, 이 나라에 평화를 주세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만으로 이들을 해치려는 사람들을 멈춰주세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보는 모든 교회에 대해 감사드려요.
도움의 손길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도록 기도드려요.

19. 알제리
하나님, 알제리 지도자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들이 다른 교회들이 다시 열리게 하시고 기독교인들
이 함께 진복하고 제자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해주세요. 종교의 자유를 누르는 법이 사라지도록 기
도드려요.

20. 모리타니
하나님, 모리타니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
안전하게 나눌 수 있도록 종교 자유의 문을 열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려는
가족들의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독교
인들의 가족들이 마음을 열도록 기도드려요.

21. 우즈베키스탄
하나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에 관한 성경과 책들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박해
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을 전한다고 감옥에 갇힌 모든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드려요.

22. 콜롬비아
하나님, 정의 위해 싸우다가 순교한 교회 지도자들의
가족들과 함께 해주세요. 많은 박해 받는 청소년들을 돌
보아주는 오폴도어 아동센터에 대해 감사드려요. 범죄
집단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힘들어하는 목회자들이 하
나님의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드려요.

23. 부르키나파소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아이들이 학
교에 갈 수 있게 더욱 더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드려요.
공격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하
나님의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드려요.

24.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폭력적인 공격으로 인해 많은 기독교인들이 집을 떠나
수용소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위
로해주시고 식량도 공급해주세요. 공격의 위험에 처한
교회 지도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기독교인들이 생계를
구할 수 있도록 돕는 손길들을 위해 기도드려요.



30.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의 아이들이 기독교
인이라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
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강해지도록 도와주
세요. 오폴도어 파트너를 통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 정부 지
원에서 제공된 기독교인들을 도
울 수 있도록 기도드려요.

29. 모로코
하나님, 모로코의 기독교인
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
록 도와주시고 이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드려요. 이들이
다양한 기독교 서적들을 접
하면서 믿음이 매일매일 더
강해지도록 기도드려요.

28. 니제르
하나님, 니제르에서 사역
자들을 보호해주세
요. 그리고 기독교 신
앙을 부인하려는 압
박으로 힘들어 하는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갈 수 있
도록 기도드려요.

27. 쿠바
하나님, 많은 기독교 활
동가들 또는 교회 지도
자들이 체포되어 감옥에
있습니다. 정권을 감시
를 풀고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게 해주세요. 그
리스도인들이 지혜롭고
용감하도록 기도드려요.

26. 투르크메니스탄
하나님, 많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는 교회 지도
자들을 도와주세요. 이들
이 교회를 인도할 때 현
명하고 용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신앙
을 이유로 가정폭력을 당
한 여성들을 치유해 주시
도록 기도드려요.

25. 베트남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
는 이유로 집과 마을에서
쫓겨난 이들을 도와주세요.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보다 더 잘 이해하
도록 도와주시고 새로운
기독교인들이 믿음과 담
대함으로 성장하도록 기
도드려요.

ARISE AFRICA CAMPAIGN

일어나라 아프리카 캠페인

일어나라 아프리카 캠페인(Arise Africa Campaign)

동역자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폭력적인 기독교 박해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해주시고 연합하여 폭력적인 박해에 함께 맞서 주세요. 이곳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여러분의 기도와 지지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를 위한 선물

- 25,000원으로 박해 받는 가정의 젊은이들 4명에게 한 달치 교육을 제공하여 희망을 선물합니다
- 60,000원으로 극심한 폭력을 경험한 3명의 기독교인들에게 트라우마 치료를 통한 치유와 소망을 선물합니다
- 160,000원으로 박해로 인해 실향민이 된 4명의 기독교인들에게 식량, 의약품, 그리고 생존을 위한 이외 긴급 구호를 선물합니다
- 270,000원으로 박해 받는 가정의 젊은이들 4명에게 일 년치 교육을 제공하여 희망을 선물합니다

아프리카 후원 신청은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홈페이지 또는 대표번호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홈페이지:

<https://www.opendoors.or.kr/> (QR코드를 찍어주세요)

한국오픈도어선교회 대표번호: 02-596-3171



오직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나의 희망의 선물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한 사람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전달/훈련

- 선물1. 박해지역 성경전달-오디오/디지털 성경포함 6\$(7,000~)
- 선물2. 박해지역 제자훈련-SSTS세미나 등 20\$ (30,000₩ ~)
- 선물3. 박해지역 목회자훈련/컨퍼런스 20\$ (30,000₩ ~)



생계지원

- 선물4. 이슬람 박해지역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 선물5. 탈북자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 선물6. 박해지역 수입창출 프로젝트 지원 40\$ (50,000₩ ~)



여성,어린이 케어

- 선물7.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트라우마 치료,지원 40\$(50,000 ₩ ~)
- 선물8.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교육과 생계지원 40\$ (50,000₩ ~)
- 선물9. 박해지역 어린이 주일학교, 캠프지원 20\$ (30,000₩~)



난민/투옥자/파괴된 교회 지원

- 선물10. 박해로 인한 크리스천난민 구호, 지원 50\$ (60,000₩ ~)
- 선물11. 박해피해 크리스천 법률지원 50\$ (60,000₩ ~)
- 선물12. 박해공격으로 파괴된 교회 보수/건축 100\$ (120,000₩~)

참여안내 "후원자님이 지정하신대로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됩니다"

- 후원항목을 원하시는대로 선택하세요 (다중선택가능)
- 총 선물 금액을 오픈도어 '희망의 선물' 계좌로 송금해주세요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 전화(02-596-3171/010-7548-3171)또는 메일(odsk@opendoors.or.kr)로 신청내역을 알려주세요.
- 매월 자동이체(CMS)로 선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선물번호:	이름(예금주):	주민번호: -
주소:		
전화번호:	출금 은행 및 계좌번호:	
출금액:	출금일 선택 5일 25일	출금동의서명:

*연말정산시 기부금영수증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민번호 13자리를 꼭 기입해주세요.

위 표를 작성하신 후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 보내실 곳 : 010-7548-3171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계 3:2)
Wake up! Strengthen what remains and is about to die. Rev 3:2

YEARLY CAMPAIGN

개인 후원자 500명,
후원교회 100교회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진흙속에서도 꽃은 피어납니다.
굴이 깊을 수록 절경을 빚어 냅니다.
박해와 핍박속에서도 성도들의 믿음은
정금과 같이 빛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박해받는 성도들을 더욱 강하게 세울 것입니다.
이 사역을 더욱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회의 운영과 개발사역을 위해
월 10,000₩ 정기후원자와
월 50,000₩ 정기후원교회가 되어 주세요!

● 한국오픈도어 CMS 정기후원 자동이체 신청하기

이름(예금주)		출금은행		계좌번호	
주민번호		출금액	10,000원 기타:	출금일	<input type="radio"/> 5일 <input type="radio"/> 25일
전화번호		출금동의 서명			
주소					

*작성하신 후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 (010-7548-3171)



Open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